

지역 소식통

고창군, '2023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기관' 선정

고창군은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부 주관 '2023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 총 인구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하수도 운영·관리·정책 등 3개 분야, 32개 세부항목에 따라 1차 서류평가와 2차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고창군은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군은 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수질관리와 악취저감 분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심덕섭 군수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들과 관리대행사가 고생한 결과다"고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농업법인 실태조사

정읍시가 설립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목적 외 사업을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내년 2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업법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역 내 법인세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 운영 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488개소(영농조합 258, 농업회사 230)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설립요건 충족 여부 △사업 범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농업법인 시는 농어업경영체법 위반사항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을 하고 중대한 사항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법인 실태 조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업법인을 정상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박차

내년 3월 11일까지 건축설계공모 접수... 3월 말 선정 총 사업비 75억원 연면적 1089㎡, 지하 1층~지상 3층 건립

정읍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기 위한 건축설계공모를 8일 시청 홈페이지와 나라장터에 공고한다. 건축설계공모는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해 창의성과 기술력이 뛰어난 작품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용계동 일원에 총 사업비 75억원을 들여 연면적 1089㎡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에는 모자동실 10실과 신생아실, 격리실, 프로그램실,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춘다.

시는 공모한 작품을 오는 내년 3월 11일까지 접수받고 공모 심사를 거쳐 3월 말 최종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는 정읍시보건소 건강재활과에 관련 서류들을 갖춰 방문접수하면 된다. 우편이나 이메일 등 비대면

접수는 불가하다.

그동안 서남권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이 없어 전주나 군산, 익산 등으로 원정을 가야만 했다. 이마저도 민간 산후조리원이어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정읍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되면 서남권 산모들이 처한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과 소아 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전문 병동 등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읍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바이오산업 유공자 선정돼 지역 식품산업 활성화 기여

(재)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연구기획팀장 이수정)는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2023 바이오산업의 날' 행사에서 바이오산업 유공자로 선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연구소는 그동안 △기업지원(지역특화 식품지원 제품개발 및 기능성 지원) △특화작물의 연구개발에 선도적 역할 △지역 식품기업의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됐다.

특히 연구소는 2008년 설립 후 기존 농식품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던 연구소의 기능을 고창군민과 함께하기 위해 지역발전 전략 수립 분야 등 기능적 역할 확대를 통해 고객중심 실용 연구소로서 지역발전 싱크탱크 역할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고창식품산업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꿔 새 출발을 한



(재)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는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2023 바이오산업의 날'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다. 연구소의 새로운 도약과 기능확대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 고창 지역의 발전과 식품분야 연구의 선도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희권 소장은 "이번 표창 수상을 계기로 지역 연구소로서의 기능적, 사

회적 책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신사업 발굴, 맞춤형 기업지원, 스마트 경영실천 등을 통한 고창 지역특화산물 및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우수 국산 콩 생산단지 선발대회 '장려상'

부안군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한 제3회 우수 국산 콩 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부안 하이영농조합법인이 공동 영농 및 다수확 생산기술 등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장려상(AT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자체의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

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해 콩 생산단지 운영 역량과 재배관리 체계 및 수확 후 관리 역량을 전문가 평가단의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우수 생산단지를 선정했다.

부안 하이영농조합법인은 경영체 중심으로 고품질 국산 콩 생산을 위해 지역별로 조직을 만들고 생산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참여 농가의 생산면적 증가와 수확한 국산 콩의 품질도 향상시키면서 국산 콩 생산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송영학 하이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농가와 군의 협조로 우수 국산 콩 생산단지로 선정되고 장려상을 받았다"며 "농가소득 향상과 고품질 국산 콩 생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이 지난 6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3년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합동 성과대회에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우수사례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창군, '국민영양관리' 장관표창 수상

보건소,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우수사례분야 우수기관 선정

고창군이 지난 6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3년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합동 성과대회에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우수사례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2022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우수사례 88건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영양·식생활 문제 파악, 사업 전략, 연계·협력,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 적절성 등을 평가하며, 고창군을 포함한 15개의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한 생애주기 특성에 따른 맞춤형 영양사업 추진, 건강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과 지속적인 연계·협력 강화 등 각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

다. 특히 고창군은 2015년부터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건강밥상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활터별 직접 방문을 통한 체험형 건강 식생활 프로그램 운영 등 영양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2023년 6월 고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역주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고창군보건소 유병수 소장은 "이번 수상은 많은 분들께 건강한 삶의 가치를 전할 수 있게 돼 큰 영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2023년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7일 오전 11시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민·관·군·경·소방 등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23년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통합방위협의회장인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군, 경찰, 소방, 해경, 유관기관 등의 기관단체장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2023년 통합방위추진 성과 및 2024년 운영계획 보고, 기관별 현안, 협조사항 등을 공유했다.

참석 기관단체장들은 지역안보태세 확립을 공고히 하고 보다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통합방위태세의 발전방안과 협조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권익현 군수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